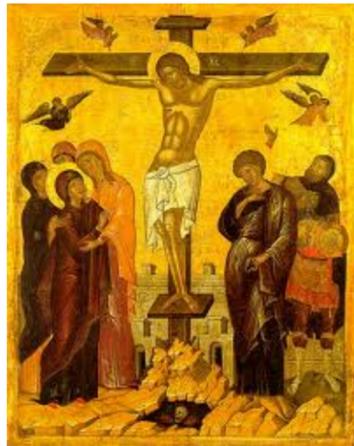


❖ 2월의 전례 - 사순시기



사순 시기 일곱 주간은 모든 전례주년의 중심이며 모든 구원 신비의 종합인 파스카를 준비하는 때다.

세례, 견진, 성체 성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받지 않은 예비자들은 이 시기 동안 입문 성사들을 준비하여 위대한 파스카 밤에 그 성사들을 받으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동안 자신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새롭게 된 은총을 받는다.

이러한 사순절 40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사막에서 사탄과 대적하고 그 유혹자를 이기셨던 40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막에서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며 악마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아버지한테서 받은 길, 곧 십자가의 겸손을 통한 구원을 선택하셨다. 이 시기 동안 우리 역시 하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더욱 귀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다. 살아 계신 이 말씀께서는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신다. 살아 계신 빵은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 이러한 발걸음의 표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막과 해방과 노예생활에서의 탈출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구약의 하느님 백성을 위한 기적의 시기였다. 그러나 사실 이 기적들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보여진 것들이다 (예형). 만나는 우리들에게 성체성사이며, 바위에서 솟아 나온 생수는 영의 선물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찬란한 빛은 진리와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은 복음이다. 40 일 동안 우리는 이러한 성서의 변천을 다시금 거쳐간다. 그러나 이러한 거쳐감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성서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그 사건이 완성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범한 죄를 더 예민하게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신뢰보다는 하느님의 옛 백성이 지녔던 완고한 마음을 더 닮았으며 또 닮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아프게 되새긴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조건에 대해 안다는 것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낙담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망과는 반대로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 우리의 신뢰는 더욱 새롭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사순절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주님을 통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깨달음으로써 감동한 우리가 찬미를 바치는 때이다. 그래서 사순절은 되돌아감과 회개와 고백의 때, 즉 슬픔과 가책에서 은총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하는 때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와 그리스도교 입문의 은총을 다시 받는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요한 4,5-42) 예수와의 만남 또는 태중 소경 (요한 9,1-41)과 나자로 소생 이야기 (요한 11,1-45)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를 위해 현재화된다. 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만남과 기적들은 우리의 세례를 통해 일어나는 사건의 상징이며 예형인 것이다.

이 성사들은 주님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며 현존케 한다. 기도과 참회 (보속)는 전 교회의 “영신 수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우리의 진지한 의지가 없다면 파스카는 시간이 흐르면서 따라 오는 것일 뿐이므로 파스카의 은총은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교회가 전례를 통하여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새로운 무언가를 열매 맺을 것이다. 즉, 생각이 바뀌고 의향이 정확되며 행동이 개선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파스카의 신비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에 경이롭고 외적인 무슨 예외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이 침묵 가운데 우리 실존 안에 이미 싹트기 위해, 날마다 예수의 수난에 동참하면 - 그래서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다 -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 영적독서 (루카 4,1-13)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 묵상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으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순시기의 첫째 주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서 광야에서 40 일간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0 일간 단식하신 나머지 시장하신 예수님께 악마는 먼저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의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악마에게 경배를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천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악마를 물러나게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돈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우리들은 매번 유혹의 대상이 되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 번 유혹 앞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난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 하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복음말씀은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 역시 그 모범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인 상태로 즉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혹 퇴치법. 그 첫 번째는 당연 ‘말씀의 힘’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정을 드러내며 따지지 않고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 치고 계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신명기 8,3)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13) 그리고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16) 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유혹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아 복음서 한권이라도 정성을 다해 필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금의 광야를 유혹의 장소가 아닌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찬미하는 장소로 변화 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혹퇴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글에 한 문장을 더 첨가합니다. “물리쳐라! 한 번도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에 우리가 그리도 쉽게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경험 때문 일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새 옷이나 새 차 를 갖게 되면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염려해서 조심하다가도 한 번 더러워지거나 흠집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보다는 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하나 둘 얼룩이 생기면 그때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깨끗해지기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주일미사를 한 번 꺾한 사람이 두번 세번 꺾하게 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금방 ‘지난주에도 빠졌는걸...’하며 자신을 유혹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한 번도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의 자세입니다. 매 순간순간 세례성사를 통해 갓 태어난 신앙인인 것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들 유혹에 맞서면서 고통과 절망뿐인 광야가 아닌 부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흘러넘치는 광야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해 봅시다.

(수원교구 나눔의 소공동체지 2 월호 발췌)

❖ 성체조배

❖ 시작성가 (회의실)

❖ 시작기도 (길잡이 14 쪽)

❖ 새로오신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 행사 토의 / 각 부서 공지 사항

○ 서중부 꾸르실료사무국 1 월모임

- 2013년 여성주말피정 (8/15-18) 결정. 주말회장: 홍인숙루시아.
- 사무국 임원 선출  
주간: 구준모요한(SC) / 부주간: 정상준미카엘, 홍인숙루시아 / 학교장: 김광용요한 / 영어주말담당: 홍일영리차드 / 홍보: 최광섭요한 / 주말이후: 정휘식루시아

○ 주말피정 봉사자모집

- 첫모임: 2/17 (일) 오후 3 시, 오클랜드성당

○ 길잡이학교 제 3 기 모집

- 1 차모임(오리엔테이션): 2/25 (월) 오후 7 시, 본당

○ 성당 홈페이지 울뜨레야 활성화

- 월례모임 모임지, 목상자료, 팀회합 관련 지속적인 업데이트
- 산호세 한인 꾸르실리스타 홈페이지 준비중 (최광섭요한)  
<http://www.sjkoreancursillo.org>

○ 3 월 주요 행사

- 울뜨레야 2013년 3월 월례모임: 3/14 (목) 저녁미사 후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담당: 밀피타스구역 + 울뜨레야): 3/15 (금) 오후 7 시 30 분

○ 팀회합 현황

○ 빨랑가 현황

○ 기타 토의

❖ 영적 지도: 지도 신부님

❖ 마침 기도 (길잡이 15 쪽)

❖ 마침 성가

❖ 친교 시간

Special Thanks: 이번달 울뜨레야 월례모임의 성체조배 / 영적독서 / 목상 봉사 및 친교시간 간식 준비는 알마덴 여성 까리따스 팀에서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